

# “따뜻한 디자인”으로 일상성·공동체성 구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이길형 총감독 인터뷰

‘사람 사는 세상 따뜻하게.’

2019 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7일-10월31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등)를 이끌 이길형 총감독(홍익대 광고디자인학과 교수)이 밝힌 이번 전시의 컨셉이다. 물론 ‘따뜻함’을 구현하는 건 디자인이다. 올해 전시 주제는 ‘휴머니티(HUMANITY : Humain+Community)’다. 사전적 의미를 ‘인간다운’, ‘인간에’ 등을 뜻하는 ‘휴먼(Humain)’과 ‘커뮤니티’를 조합해 만든 단어로 디자인의 역할과 가치가 나에서 시작해 공동체로 확산돼 갈 때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전시는 일상의 삶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디자인이 인간의 삶에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가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삶 속에서 같이하는 디자인’의 역할을 찾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소셜 디자인을 비롯해 환경문제와 도시재생의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를 언급합니다. 요즘 디자인의 역할은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 감독은 “미래를”을 주제로 열린 2017 디자인 비엔날레가 디자인과 기술의

인본주의 토대로 다양하게 접근  
 바우하우스 100돌 기념전 눈길  
 전문·대중성 결합 시민과 소통  
 토크 버스킹 열고 취·창업 멘토링

접목으로 디자인의 미래를 보여줬다면 올해 행사는 기술의 발전이 이뤄진 상황에서 디자인의 가치를 인본주의에 두고 다양하게 접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올해 비엔날레는 주제전 ‘사람을 노래하다’, 국제전 ‘다음 세대에 주는 선물’, 특별전 ‘사람, 사람을 위한 기술’, 체험형 전시 ‘응답하라 너, 나 우리’, 지역 산업전 ‘광주다움, 광주 사람의 생각들’, 국제학술 행사, 시민참여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현대 디자인의 근본을 제시한 독일 바우하우스 100주년 기념전이다. 전시팀은 독일을 비롯해 네덜란드 로테르담 등에서 열렸거나 현재 진행중인 관련 전시들을 살펴보고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소개할 만한 전시 기획을 구상 중이다. 또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덴마크



크를 비롯해 유럽 각국의 인본주의 디자인을 만나는 기획전도 준비하고 있다.

비엔날레가 많은 사람이 관람하는 대규모 행사임을 감안, 전문성과 함께 대중성도 놓치지 않으려 한다.

“시민들과의 소통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4관에서 열리는 전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곳에 작은 ‘디자인 시티’를 구현해 보여줍니다. 쉽 개념이기도 하고, 배움과 체험의 공간이죠. 힐링이

가미된 디자인적 요소들도 포함을 시켜 직접 경험하는 공간으로 꾸밀 생각입니다. 또 3관은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숨어있는 디자인적 요소를 발견하는 전시로 다양한 기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감독은 또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위해 광주의 신성장산업인 ‘뷰티산업’과 디자인의 접점을 찾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각 대학들과 연계하고 시대적 디자인의 트렌드를 보여줄 예정이다.

또 고용창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창업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 ‘토크 버스킹’은 디자인 관련 강연과 함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강화해 재미와 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주최측은 현재 국내외 디자이너들의 참여 여부를 타진중이며 늦어도 5월초까지 참여작가 등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

광주일을 곁집인 이 감독은 “고향 광주에서 전공 분야인 디자인으로 작은 힘이나마 보탬을 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국내 27개 디자인 관련 단체의 모임인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어 네트워킹 등에 강점을 갖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박진현의 문화카페

5년 전 국립현대미술관(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을 찾던 날, 파스한 햇살과 높은 대추나무가 인상적인 작품 앞에서 발견을 멈췄다. 고 오지호(1905-1982)화백의 ‘남향집’(1939년 작)이었다. 현대미술관이 주최한 ‘명화를 만나다-근현대회화 100선’에는 ‘남향집’ 이외에 ‘처의 상’(1936년 작), ‘설경’(1971년 작) 등 오 화백의 대표작들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남향집’은 유독 오 화백이 아꼈던 작품으로도 유명하다. “이른 겨울 따뜻한 어느 날 오후, 남향 초가집의 흰 벽과 그 앞에 있는 높은 대추나무 가지의 음양의 교차를 그렸다.” 생

그의 작품들을 별도로 전시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07년 광주일보를 통해 이런 사실이 처음 알려지면서 ‘오지호 유작 돌려받자’라는 캠페인이 펼쳐졌다. 하지만 국가재산인 만큼 광주에 돌려줄 수 없다며 미술관측이 외면하는 바람에 ‘빈손’으로 끝났다. 설상가상으로 광주시와 시립미술관의 무관심도 한몫했다는 게 당시 미술계의 중론이었다.

최근 ‘남향집’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다시 만났다. 현대미술관과 광주시립미술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남도미술 뿌리 Roots’(6월8일까지 전시)전의 흰 벽과 그 앞에 있는 높은 대추나무 가지의 음양의 교차를 감상할 수 있는 특

## ‘남향집’이 있어야 할 곳은

전 그의 설명대로 맑은 공기와 투명한 빛이 들어치듯 쏟아지는 화폭에선 파스한 남도의 정서가 묻어났다.

하지만 ‘남향집’ 앞에 선 나는 명작을 봤을 때의 벅찬 감동과는 별개로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다. ‘남향집’이 현대미술관의 품에 안길 수 밖에 없었던 지난 시간이 떠올라서다.

사실 현대미술관에는 ‘남향집’을 비롯한 오 화백의 작품 37점이 때 아닌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 지난 1985년 오 화백의 유족들이 이들 작품을 전남도에 기증하려 했지만 당시 변변한 미술관이 없어 서울로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기증 당시 현대미술관은 유족들에게 상설전시관 건립을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대다수 작품은 지하 수장고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미술관 시설이 부족해

별한 자리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이상실 여사(오지호 화백의 며느리)는 “따치 돌아가신 아버님을 다시 뵙는 것처럼 반갑고 기쁘다”면서 “생전 작업실에서 작업에 몰두하셨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말을 흐렸다.

미술관을 나오는 길, ‘남향집’의 타향살이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오 화백의 작품들을 되돌려 받는 건 남도 미술은 물론 한국미술의 뿌리를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식처 대신 ‘낯선 곳’에서 떠돌고 있는 유족들의 설움을 아젠 끝내야 될 때다. 만약 반환이 어렵다면 영구임대 등을 통해 광주로 가져오는 지혜를 모으자. 이는 곧 거정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남향집’이 있어야 할 곳은 그의 예술혼이 살아 숨쉬고 있는 여기, 남도이기에.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전남도립국악단 창극 ‘개벽-민초의 노래’ 연습 모습.

## 창극 ‘개벽-민초의 노래’ 무안 남도소리울림터 공연

전남도립국악단이 창극 ‘개벽-민초의 노래’를 오는 12일 오후 7시, 13일 오후 5시 무안 남도소리울림터에서 공연한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이번 공연은 전남도와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주최·주관하고 광복회 광주전남연합지부가 후원했다.

작품은 1907년 정미의병 당시,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의병장 김태원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호남의병의 업적과 민초들의 활약을 다뤘다.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의병이란 이름으로 맞서 싸운 선열들의 업적을 민초의 시선으로 조명하면서 독립정신의 근간

이 된 한말 의병정신을 기리고자 했다.

유장영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 총감독을 맡고 손재오 극단장들 상임연출이 연출했다. 극본은 차범석희곡상 수상작 ‘푸르른 날에’를 쓰고 도립국악단 창극 ‘국민심서’ 제작에 참여한 정경진 작가가 맡았다. 이외 윤진철 명창(작창), 이교운(작·편곡), 권지인(안무)씨 등이 제작에 참여했다.

전석 1만원(단체·대학생 7000원, 학생·유료회원 5000원, 65세 이상·장애인 무료). 문의 061-285-6928.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황석영 ‘마터2-10’ 문화웹진 ‘채널에스’ 단독 연재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10일부터 황석영 작가의 신작 소설 ‘마터2-10’을 문화웹진 ‘채널에스’를 통해 단독 연재한다.

‘마터2-10’은 황 작가가 1989년 반복했던 당시 어느 노인이 3대에 걸쳐 철도원으로 근무했다는 말에서 영감을 얻었다. 작가는 일제 중엽부터 운행되던 전쟁 중 폭파된 산악형 기관차 마터 2형 10호를 매개로, 분단된 한반도와 그 시대를 살아간 사

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마터2-10’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주 2회 연재로 독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황 작가는 “세계의 근대는 철도 개척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세계화의 시대에 나는 아직도 분단된 한반도에서 대륙을 확인하고 싶었다”며 “인간의 인생살이를 꿈처럼 그려볼 생각이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계간 ‘다층’ 봄호 나와...강대선 시인 ‘달 보느라’ 등 실려

201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강대선 시인의 신작 ‘달 보느라’ 등 2019년 신문에 당선자 신작을 특집으로 엮은 계간 ‘다층’ 봄호가 발간됐다.

다층에는 강대선 시인의 ‘달 보느라’ 외에도 ‘달빛’ 등의 작품도 담겨 있어 강 시인의 문학적 토대와 지향 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17명의 신인들의 신작 34편도 수록돼 있어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한 다층에는 2019년 신춘문예 시조에 당선된 신인들의 신작도 수록돼 있다. 모두 11명의 22편의 신작은 개성 넘치는 시

조 시인들의 작품을 가능할 수 있게 한다.

전형철 서울여대 국문과 초빙교수는 총평에서 “신춘문예가 완성형이 아닌 가늠에 값어치를 더 매기고 너무 빨리 우리가 쓴 것이 읽히고 쉽게 이해되길 바라지 않기를 바란다”며 “새로운 시인들에게 ‘문제는 이제 세계, 무국적 단독 정부’라는 덕담을 건넨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지훈문학상에 김종일 시인 선정

김종일(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 시인이 제19회 지훈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품집은 ‘가슴에서 사슴까지’.

지훈문학상은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고결한 정신을 기리고자 제정된 상이다. 김 시인은 그동안 산문적 감수성을 토대로 감각적인 이미지와 다양한 비유의 작품을 써왔다. 그의 네 번째 시집 ‘가슴에서 사슴까지’는 부조리한 세계와 비극적인 삶을 섬세하면서도 진솔한 언어로 그렸다는 평을 받는다. 김 시인은 지난



200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신동엽문학상과 김구용시문학상을 수상했다.

한편 제19회 지훈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27일 나남출판사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과 함께 경기도 포천시 나남수목원 책박물관에서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알로에

#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